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¹⁾

유 민 상 연구위원
신 동 훈 부연구위원

요약

-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이 연구는 아직 학술적, 정책적으로 개념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적 고립의 개념, 영향요인,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이란 사회적 연결망 및 관계가 거의 단절되어 있거나 스스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함. 사회적 고립은 청년 니트(NEETs), 은둔형 외톨이(ひきこもり) 개념보다 다차원적인 개념이며, 상태 중심적 개념임.
- 청년의 고립 측정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망(network), 연락(contact), 호혜적 교환(reciprocity), 외로움(loneliness)이며, 이것은 개인의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 혹은 삶의 질 측면에서 중요함. 청년의 고립 해결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에서의 역할(role), 타인과의 관계(relationship)와 사회적지지(social support), 소속감(sense of belonging)이며, 이것은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 기회를 다변화함으로써 사회와의 재연결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청년의 고립 해결을 위한 열쇠임.
- 사회적 고립은 주로 노인층에서 나타났던 현상이나 청년들에게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1명 이상의 청년(13.4%)이 스스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었고, 20명 중 1명 이상의 청년(5.1%)은 평소 잘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주로 머무르고 있었음.
- 사회적 고립 혹은 단절은 아동·청소년기부터 부정적 경험이 누적되어 나타나거나, 청년기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고립의 문제를 단기적, 임시적 서비스로 접근할 경우 크게 실효성을 보기 어려울 수 있음. 또한, 아동청소년기 가정, 학교문제가 심화되어 나타나 점차 심각해지고 장기화될 수 있음.
- 청년기 고립 개념의 핵심은 '단절'이며, 단절을 '연결'로 변화시키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함. 이 연구는 새로운 기회를 통한 재연결을 위해 6개 영역 22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음.

1) 본 블루노트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1년 연구과제인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를 발췌·요약한 것임. 이 과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연구위원, 신동훈 부연구위원, 이민정 연구사업운영원이 참여하였고, 오오쿠사미노루 팀장(前 K2 인터내셔널), 문유진 대표(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김광혁 교수(전주대학교), 손동영 연구원(요크대 박사과정), 송효준 부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이 집필진으로 참여하였음.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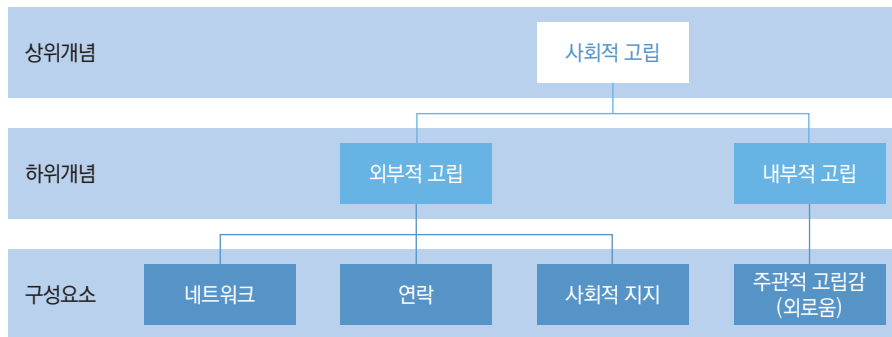
- ▶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실태 및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이 연구는 아직 학술적, 정책적으로 개념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적 고립의 개념, 영향요인,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 ▶ 청년들이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개인화와 공동체의 소멸이라는 사회적 변화의 축과 정보화와 초연결화라는 기술적 변화의 축 등 두 가지 축에 의해 큰 사회변화를 맞이하고 있음. 청년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회와 점차 연결되지 못하고 외부적, 내부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그동안 사회적 고립은 노인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으나 청년의 고립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
- ▶ 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두 가지임. 하나는 생애전반기 사회적 고립은 누구에게, 왜, 어떻게 발생하고, 그 결과는 어떠한가임. 생애전반기의 사회적 고립은 생애사건들이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장기화되어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생애초기의 사회적 고립의 원인, 영향, 결과 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함. 두 번째는 생애전반기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책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임.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고립 관련 정책은 사후적이고 임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사후적 접근은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개인에게 많은 고통을 줄 수 있으므로, 이 연구는 생애전반기에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 이 연구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의 실태, 원인, 과정,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연구, 양적연구(설문조사 및 2차데이터 분석), 질적연구(고립 청년 당사자들과 가족, 서비스 실무자 면담), 국내 법률 및 정책분석, 국내 사회적 고립청년 민간프로그램 사례분석, 해외 정책사례 분석 등을 진행하였음.

2. 연구결과

1) 문헌연구 결과

- ▶ 사회적 고립이란 사회적 연결망 및 관계가 거의 단절되어 있거나 스스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함. 외부적 고립(external isolation)은 ‘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망이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 내적인 단절을 의미하는 내부적 고립(internal external)은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음. 외부적 고립은 타인과의 사회적 연락(social contact), 사회적 지원(social support), 개인 간 정서적 교류(emotional relationship)가 없거나 거의 없는 상태로 정의함. 내부적 고립은 인지된 사회적 고립(perceived social isolation)이나 외로움(loneliness)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음(Zavaleta, Samuel, & Mills, 2017; Valtorta, Kanaan, Gilbody, & Hanratty, 2016; Cacioppo & Hawkley, 2009).

- ▶ 사회적 고립 청년은 고용, 훈련, 진학을 하지 않은 니트(NETs) 개념, 일정 기간 동안 외부로 나가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개념과 유사하지만 차별성이 존재함. 니트(NETs)는 지위 중심적 개념으로 고용되거나, 훈련 중이거나, 진학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하지만 고용, 훈련, 진학 중에도 개인의 네트워크가 빈약하거나 스스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음. 은둔형 외톨이는 행동 중심 개념으로 일정기간 밖에 나가지 않는 행동(외출)과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지칭함. 하지만 사회적 고립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나타날 수 있으므로 외출과 관계없이 나타날 수 있음. 사회적 고립 개념은 니트, 은둔형 외톨이 개념보다 다차원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음.



출처: 유민상, 신동훈 (2021)

[그림 1] 사회적 고립의 구성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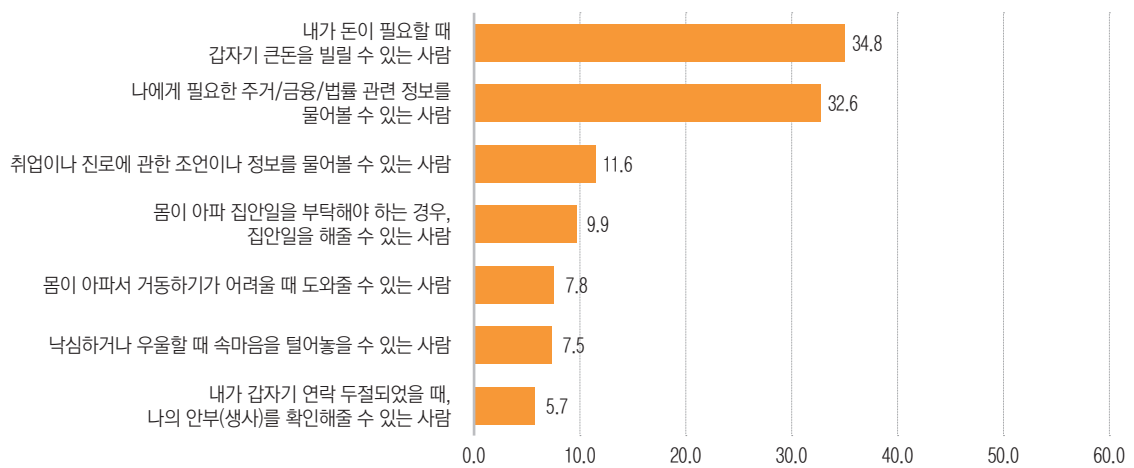
- ▶ 사회적 고립은 인생의 어느 시기에나 나타날 수 있으므로 생애주기적 관점을 통해 분석되어 왔음. 사회적 고립의 영향요인은 아동기 부정적 생애 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이나 청년기에 경험하는 부정적 경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아동기 영향은 아동학대, 가정폭력 목격과 같은 가정환경 요인, 학교폭력, 따돌림, 낮은 학업성취, 진학실패와 같은 학교 관련 요인 등이 있음(Felitti et al. 1998; 김춘남 외, 2018). 청년기 영향은 취업실패, 노동시장에서의 부적응, 장기실업상태 등과 같은 노동시장 요인이 있음.
- ▶ 사회적 고립은 개인에게 우울증과 자살생각 같은 정신건강 문제, 성인기의 낮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기술로 인한 진로의 불안정과 경제적 안정성 문제 등을 유발할 수 있음. 장기화되는 사회적 고립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2) 양적연구 결과

- ▶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다각도로 측정하였음. 그 결과 ①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이 2명 이하인 청년 18.1%, ② 타인과 전반적인 교류 빈도가 3개월에 한두 번 미만인 청년 8.5%(대면 교류) 및 8.1%(비대면 교류) ③ 사회적 지원이 없는 청년 9.6%(정보적 지원), 4.5%(도구적 지원), 3.8%(정서적 지원), ④ 은둔 청년 5.1%, ⑤ 타인으로부터 고립감을 느낀 적이 있는 청년 13.4%(단일 문항) 및 외로운 감정들을 일정 수준 이상 느낀 적이 있는 청년 35.0%(종합 문항)로 나타났음. 전체 청년 중 2.5%는 총 9개의 지표 중 5개 이상의 지표에서 취약하였음.

▶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청년들 중 20명 중 1명은 낙심했을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고,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안부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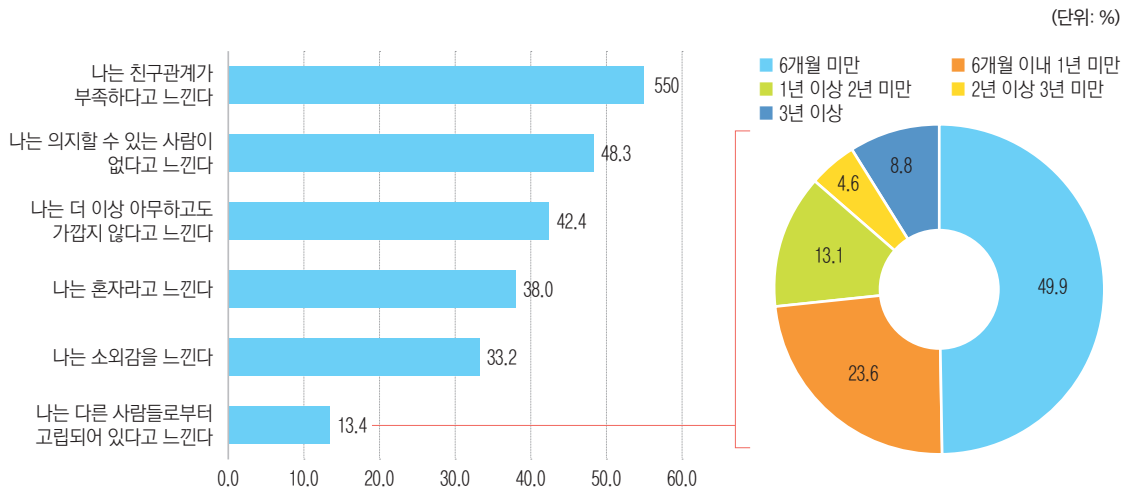
-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비율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34.8%,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사람' 32.6%로 높게 나타났으며,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7.8%,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7.5%,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5.7%로 나타났음.
- 청년들은 10명 중 1명꼴로 삶에서 필요한 정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인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그림 2]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 주관적 고립감(외로움)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년 2명 중 1명은 친구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3명 중 1명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음. 10명 중 1명은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꼈음.

- 청년들 중 '나는 친구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55%였고,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48.3%였음.
- 청년들 중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고 응답한 청년은 38.0%, '나는 소외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청년은 33.2%, '나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는 청년은 13.4%임.
- 3명 중 1명 이상이 친구 관계와 친밀한 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10명 중 1명의 청년들은 고립감을 느끼고 있었음. 이 척도는 UCLA 외로움 척도 중 일부로서 우리나라 청년들의 외로움 문제 혹은 주관적 고립 문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 필요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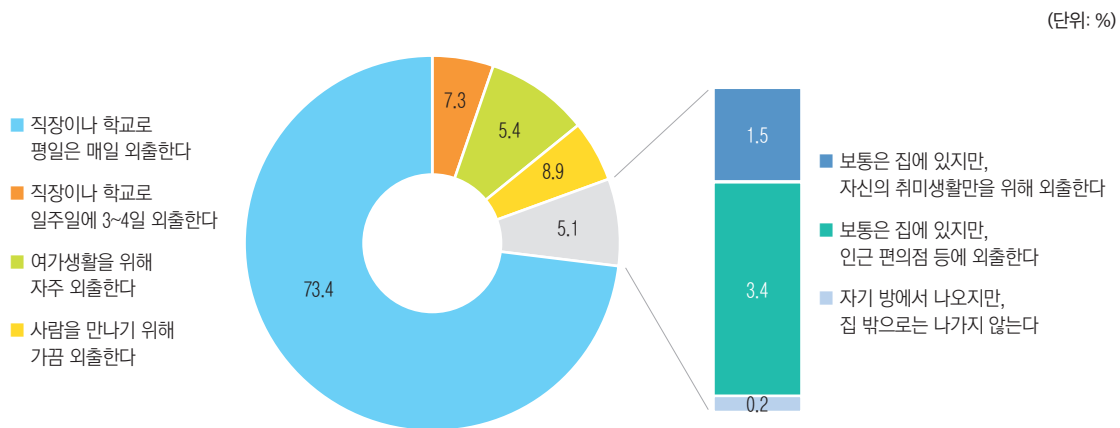


주: 느낀다는 감정은 빈도로 측정이 되었으며, 여기서는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의 합산 비율임

[그림 3] 삶에서 고립과 관련한 감정을 느낀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과 고립감을 느낀 기간

▲ '나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13.4%의 청년들 가운데 10명 중 1명은 고립감을 느낀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매우 길었음(그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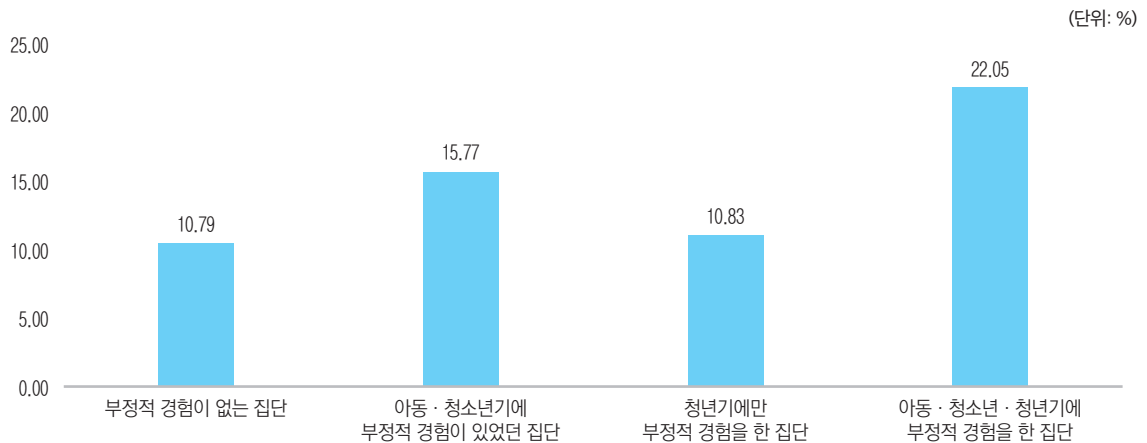
▲ 외출을 하지 않는 청년의 비율은 5.1%로 나타났는데, '임신이나 출산 때문'이라는 응답을 제외하면 전체의 1.9%의 청년들이 거의 외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그림-4). 청년 100명 중 1-2명이 방 안에 머무르는 상태에 있었으며,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방 안에 머무르는 은둔 상태에 있는 청년은 100명 중 1명 내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단,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 비율은 더 낮을 수 있음.



[그림 4] 외출하지 않는 청년의 비율과 이유

▶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 경험은 청년기의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기의 부정적 경험 역시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기에 (1) 가정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진 경험, (2) 양육자로부터 과도한 체벌 또는 정서적 공격을 당한 경험, (3)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가족구성원이 있었던 경험, (4)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5)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 (6)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여부를 물어보았고, 이 결과를 합산하여 하나도 경험하지 않은 집단과 하나라도 경험한 집단을 구분하였음.
- 부정적 생애경험을 청년기에 적용하기 위하여 (1)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교를 휴학하거나 그만두어야 했던 경험, (2)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 압박을 받거나 진로변경을 강요받은 경험, (3) 내가 원했던 시기에 대학입학을 못했던 경험, (4) 내가 원했던 시기에 취업을 못했던 경험, (5)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한 여부를 물어보았고, 이 결과를 합산하여 하나도 경험하지 않은 집단과 하나라도 경험한 집단을 구분하였음.
- 전체적으로 보면, 아동·청소년기와 청년기에 부정적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아동·청소년기에 부정적 경험을 한 집단과 아동·청소년·청년기에 부정적 경험을 한 집단은 모두 스스로 고립했다고 느낀 사람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특히 아동·청소년·청년기 모두에서 부정적 경험을 한 청년의 경우 전혀 경험하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음.
- 이는 개인의 성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주관적 고립감 혹은 외로움과 같은 감정이 개인의 삶에 기인한 부정적 경험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특히 장기적으로 나타난 생애전반기 부정적 경험은 고립을 악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응은 아동·청소년기에서의 부정적 경험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며,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 경험이 청년기에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접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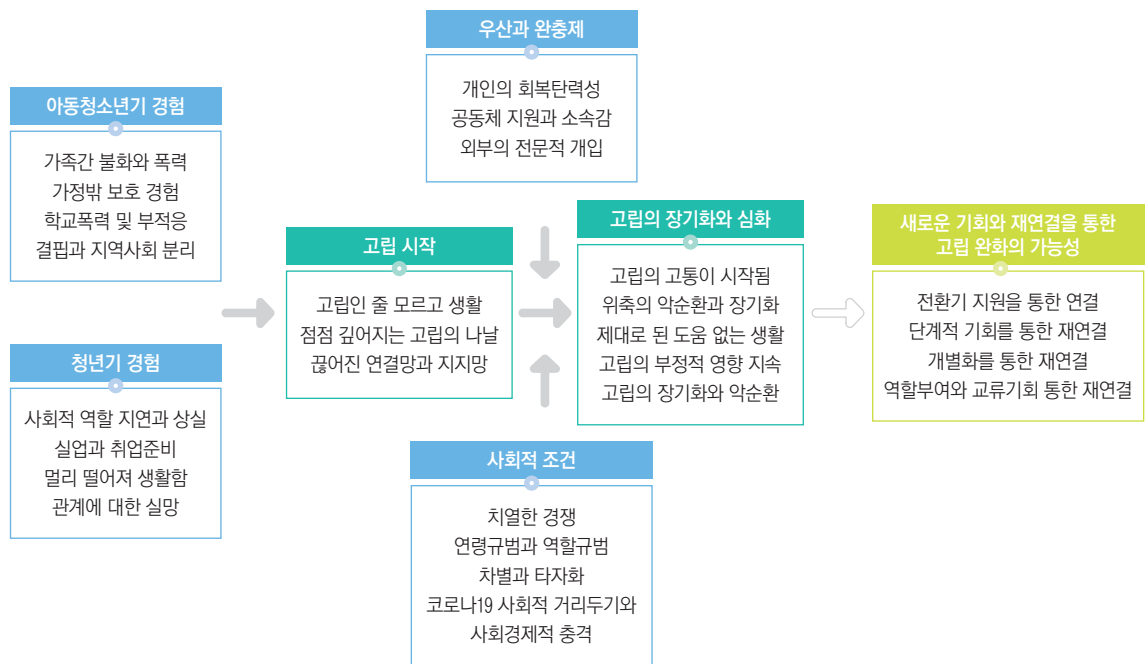


[그림 5] 아동·청소년·청년기의 부정적 생애경험에 따른 고립감 차이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청년의 비율 차이)

3) 질적연구 결과

- ▶ 사회적 고립을 경험한 청년 당사자, 가족, 서비스 실무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회적 고립은 어떠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그 상태는 어떠하며, 악화되는 과정은 어떠한지, 부정적 영향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고립을 막기 위한 정책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음.

- ▶ 전체적으로 사회적 고립은 아동·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청년기에 경험하는 부정적 생애사건들에 의해서도 발생하며, 고립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상태가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음. 사회적 고립의 상태는 외부적인 교류와 연락이 줄어들고 점차 물질적, 심리적 교환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와해되는 경향이 있었음. 당사자들은 이 시기를 거치며 외로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사회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고립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음. 사회적 고립 원인은 개인적 기질과 특성, 아동기 부정적 경험, 청년기 부정적 경험 등으로 인해 나타나며 사회적 조건과 상호작용하며 발전할 수 있음.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가족 간 불화와 폭력, 가정 밖 보호 경험, 학교폭력 및 부적응, 결핍과 지역사회 분리, 게임중독과 중첩된 취약성 등이며, 청년기 부정적 경험은 사회적 역할 지연과 상실, 실업과 취업준비, 멀리 떨어져 생활, 관계에 대한 실망 등이었음. 이와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조건은 치열한 경쟁, 연령규범과 역할규범, 차별과 타자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회경제적 충격 등이었음. 고립을 막아주는 우산과 완충제는 개인의 회복탄력성과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 지원과 소속감, 외부의 전문적 개입 등이었음. 가족은 고립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고립에서부터 보호하는 기제로 작용이 되기도 하는데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수 있음.



출처: 유민상, 신동훈 (2021)

[그림 6] 질적연구의 결과 도식

- ▶ 재연결을 위한 사회적 방안은 전환기 지원, 단계적 지원, 개별화 지원, 역할부여 및 교류기회 지원 등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지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대상 중심적 지원보다는 상태 중심적 접근,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전문적 서비스 지원, 당사자 중심적 정책설계 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4) 국내 법률 및 정책분석 결과

- ▶ 국내의 중앙 수준에서 사회적 고립의 대상 중심 개념에 대응하는 법률(고립 청년,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청년)이나 상태 중심 개념에 대응하는 법률(외로움, 고립감)은 부재하므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더 장기적인 시각으로 포괄적이면서도 정교한 법률 및 정책 마련이 요청됨. 지방자치단체 수준에는 지역사회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어 긍정적이나 대체로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거나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청년기에 지원 연속성이 떨어지며, 특히 아동·청소년기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관리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임에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 및 서비스에 한계가 있음. 생태체계적인 수준에서 보면,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부정적 생애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에 노출되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개입근거가 아동학대와 가정 외 보호 등으로 매우 제한적임. 학교 체계를 통한 지원은 위(Wee) 클래스 등의 지원근거 및 서비스 근거가 미약함. 학교 밖 체계도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행 수준에서의 사업 안정성과 전문성 등에는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5) 국내 사회적 고립 청년 대상 민간프로그램 분석 결과

- ▶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고립 지원 사업은 청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사회경제 및 심리정서 지원을 함께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음. 희망플랜의 사례에서 확인되듯,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 축적한 실무 경험의 전수가 어려우며, 당사자들에게도 서비스 회피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립 청년들에 대한 사업은 중장기적인 고려가 필요함. 장기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들의 지원에는 초기 진입단계에서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함. 무중력지대양천의 사례는 사업 성과지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단기성과의 강조는 변화가 용이한 청년을 대상으로 서비스할 위험을 야기하고 목표 타당성을 떨어뜨리며, 나아가 사업의 연속성과 인력운용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음. 대상자의 안정과 지속적 상태변화를 이루고 실무자의 직업 안정을 높여 노하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장기적 관점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것임. K2인터내셔널 사례는 민간의 역량만으로는 사회적 고립 청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어려우며, 사업추진 및 예산마련 등을 위한 정책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줌. 일본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단계적 지원을 기획하고 공동생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공에서의 예산지원 방식의 한계와 운영의 지속가능성의 한계를 보였음. 민간 서비스의 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의 양적확대와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실무자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방안이 필요함. 고립 청년 지원 서비스는 청년 당사자들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잃을 경우 청년들이 더 깊숙하게 고립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법제도적 토대 마련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과 서비스 지원 기관 발굴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6) 해외사례 분석 결과

- ▶ (영국사례) 잉글랜드에서는 점점 많은 개인들이 외로움 문제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미치는 외로움 경험의 영향이 지속적이고 치명적이라는 인식 아래 범정부적인 외로움 대처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 잉글랜드의 외로움 대처 정책의 목표와 계획은 2018년에 발표된 “A Connected Society(연결된 사회): A Strategy for Tackling Loneliness” 보고서를 통해 구체화되고, 실제 정책 집행으로 이어지고 있음. 외로움 문제의 주무부처인 시민사회부에서 관련 정부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하고 있지만, 실제 관련 사업은 주무부처 외에도 교육부, 교통부, 노동연금부 등 정부 내 전 부처에서도 수행하고 있음. 또한, 중앙 정부는 지방정부, 영리기업, 제3섹터, 그리고 가족·친구·공동체 등 다양한 주체들을 외로움 대처 전략의 주요 주체로 설정하고,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주체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음.

- ▶ (미국사례) 미국에서는 교육 및 취업 등에 참여하지 않는 16~24세 '단절 청년'의 성인기 이행을 돕는 데 정책적 지원을 투입하고 있음. 인종·민족적 구성에 따라 상이한 단절 청년의 비율과 이들이 경험하는 문제의 복합성을 고려할 때 연방정부 중심의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정책사업의 효과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음. 이에 따라 주/지방/부족 정부의 연방 자금 사용에 유연성을 제공함으로써 교육, 고용 등에서 단절 청년을 위한 실제적인 성과들을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는 성과협력 시범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성과협력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기관별로 분리되어 있는 단절 청년을 위한 예산체계를 통합하여 편성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성과 평가와 자료의 공유 등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해 행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 ▶ (일본사례) 지난 1990년 이래로 일본에서 사회문제로 불거져온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지원 사례는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함. 일본은 사회적 고립이 전연령에 걸쳐 나타난다는 기초 아래 0~30대 아동·청년에 대한 사회적 고립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히키코모리에 대한 실태파악을 통하여 증거기반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다만, 일본에서도 히키코모리에 대한 개념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음. 일본에서 연구된 바에 따르면 히키코모리를 만드는 핵심적인 요인은 부모와의 불안정한 관계와 사회적인 구조임. 일본 정부는 등교거부 및 학업중단에 대한 조기 대응을 위하여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외부의 히키코모리 및 청년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학교 안팎의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음. 특히, NPO와의 협력을 매우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는 리더십과 책무성을 가지고 NPO와 협력하여 미시체계에서의 서비스 전달이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음. NPO는 아웃리치(outreach)를 통한 대상자 발굴,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갖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성과평가에 히키코모리 지원체계에 특화된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서비스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3. 정책제언

- ▶ (정책도출과정) 각 파트별 시사점 및 함의를 종합하여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대응하는 정책을 도출함.
- ▶ (비전 및 3대 원칙) 본 연구의 정책제언은 “고립과 외로움을 넘어 새로운 기회를 통한 재연결로”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생애전반기 예방 원칙”, “역할과 소속감 증진 원칙”, “서비스 제공 협력 및 통합 원칙”을 주요 원칙으로 도출하였음.
- ▶ (6개 정책영역) 이를 통해 도출한 정책영역은 6가지임: ① 첫 번째 정책영역은 ‘법제도적 근거 및 기반’으로 개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에 사회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대 마련 관련 영역임. ② 두 번째 정책영역은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으로 아동·청소년·청년기에 발생하는 고립위험에 대한 대응에 관한 영역임. ③ 세 번째 정책영역은 ‘생태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으로 가족, 학교, 직장 생활에서의 지원 및 사회문화적 환경개선에 관한 영역임. ④ 네 번째 정책영역은

‘서비스 연결망 강화’로 전통적 아웃리치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연결 강화 관련 영역임. ⑤ 다섯 번째 정책영역은 ‘새로운 기회 제공을 통한 재사회화’로 역할과 정체감 부여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한 영역임. ⑥ 여섯 번째 정책영역은 ‘코로나19에의 대응’ 영역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나타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집중 지원하는 것과 관련한 영역임.



[그림 기본 연구의 세부정책과제 개념도]

- ▶ (22개 세부정책과제) ① 법제도적 근거 및 기반 영역의 세부정책과제는 ‘아동·청소년·청년 기본법 내 사회적 고립 대응 추가’, ‘사회적 고립 관련 조례의 개정 및 제정’, ‘아동·청소년·청년 정책기본계획 내 사회적 고립 추가’, ‘사회적 고립 관할 부처 지정 및 사무 부여’, ‘사회적 고립 실태조사 및 정기 보고서 발간’, ‘고립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인력 및 실행기관 양성’ 등임.
- ②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 영역의 세부정책과제는 ‘학령기 학교안팎의 지원체계 마련’, ‘성인 이행기 어려움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서비스 연속성을 고려한 장기적, 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임.
- ③ 생태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영역의 세부정책과제는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생태체계를 고려한 공동체 및 연결망 구성’, ‘고립을 촉진하는 사회문화적 규범 및 환경개선’, ‘생태체계적 지원체계의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강화’ 등임.
- ④ 서비스 연결망 강화 영역의 세부정책과제는 ‘아웃리치를 통한 재연결’, ‘재연결을 위한 이동 편의와 공간 제공’,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접근성 증진 및 가상공동체 구성을 통한 재연결’, ‘메타버스 및 AI 활용을 활용한 고립의 완화 및 연결’ 등임.

- ⑤ 새로운 기회 제공을 통한 재사회화 영역의 세부과제는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출발기회 제공’, ‘시민사회의 파트너십을 통한 역할기회 제공’, ‘단계적 역할제공과 조력자의 지원 제공’ 등임.
- ⑥ 코로나19에의 대응 영역의 세부과제는 ‘코로나19 특별 활성화(activation) 대책 마련’, ‘코로나19 특별 외로움 지원 대책 마련’ 등임.

4. 결론

- ▶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다원적 개념으로 다차원성과 포괄성에 장점이 있고, 대상 중심적 개념보다는 상태 중심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아직 개념이 분명하게 적용되지 않은 모호한 영역이 존재함. 사회적 고립 관련 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 적용을 위해 더 분명한 정의가 필요함.
- ▶ 정부는 단기적 시각을 가지고 사후적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매우 지양해야 함. 청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청년기 상처에 대한 전문적 상담뿐만 아니라, 전문적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사회적 역할을 경험하고 더 나은 위치로 나아갈 수 있는 일자리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기획한 서비스가 필요함. 특히 편견에 기인한 대상들을 상정하여 서비스를 설계할 경우 비전문적인 인력에 의한 서비스가, 의도치 않은 대상들에게,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전달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함.
- ▶ 사회적 고립은 생애주기적 접근과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함.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아동은 복지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청년은 국무조정실로 나누어져 연령별 대상자 범위를 나누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령별 특화된 서비스에도 차이가 있음. 분절적 접근은 사회적 안전망에서부터 대상자들이 떠나가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넓힐 수 있으므로 통합적 접근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함.
- ▶ 청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에만 집중해서는 안 됨. 청년기의 특정 상태는 아동·청소년기의 상태로부터 누적적으로 쌓여온 것이 청년기에 발현하여 중장년기와 노년기로 고착화될 수 있음. 우리 사회가 청년기에 한정하여 사회적 고립 문제에 접근할 이유는 없음. 다만,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한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기 전달 체계에서, 청년기 전달체계에서 이러한 문제를 연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한 개인이 인생에서 고립될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생애전반기에서부터의 예방적 접근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함.
- ▶ 향후 청년의 사회적 고립 연구들은 ① 개념의 타당화 및 구체화, ② 효과적인 고용,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③ 전문적 서비스 기관 설립 및 전문 인력 양성, ④ 실태파악 및 실증 연구 수행, ⑤ 증거기반의 정책 개발 등으로 분화되어 연구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김춘남, 박승민, 박승희, 김서인 (2018). **사회적 고립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경가: 경기복지재단.
- 유민상, 신동훈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Cacioppo, J. T., & Hawkley, L. C. (2009). Perceived social isolation and cognition.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13(10), 447–454.
- Felitti, V. J., Anda, R. F., Nordenberg, D., Williamson, D. F., Spitz, A. M., Edwards, V., & Marks, J. S. (1998). Relationship of childhood abuse and household dysfunction to many of the leading causes of death in adults: 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 Stud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4(4), 245–258.
- 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 (2017). *Combating loneliness one conversation at a time: a call to action*. England: 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
- Vallorta, N. K., Kanaan, M., Gilbody, S., & Hanratty, B. (2016). Loneliness, social isolation and social relationships: What are we measuring? A novel framework for classifying and comparing tools. *BMJ open*, 6(4), 1–7.
- Zavaleta, D., Samuel, K., & Mills, C. T. (2017). Measures of social isol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1(1), 367–391.